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9~4/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3	생전예수재(의미,유래,공덕)개정판	포교원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마지막말의철학:소크라테스부터사르트르까지공자부터틱낫한까지	이일야	김영사
6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7	하루를살더라도(법구경)간략한배경이야기와불교용어설명수록	향원 오원탁 엮음	불교시대사
8	만공선사법훈무문관	만공 선사	지장원
9	붓다의근본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1)	이철헌 엮음	아름원
10	붓다의가르침과팔정도(개정판)	월폴라라훌라/전재성	한국빨알리성전협회

책세상

잡지 〈불교〉 나타난 근대불교 역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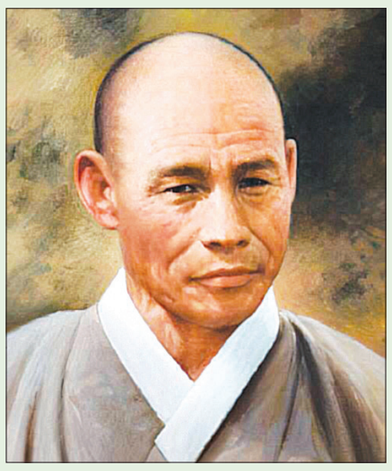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

김종진, 박상란, 김성연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근대기 발행된 잡지 〈불교〉 분석
근대 불교지성 활동상들 담겨져
불교문화운동 실상, 면면 확인돼
대중불교 지향… 현재에도 귀감

이 책의 제목,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는 〈불교 88호〉에 실린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의 개혁안' 본문 중, '6. 대중불교의 건설' 내용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山間에서 街頭로〉 〈僧侶로서 大衆에〉가 '現今朝鮮佛敎' 의 〈슬로간〉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 이 책이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라는 표어를 제목으로 제시한 것은 곧 이것이 〈불교〉지 전체에 흐르는 불교문화운동의 실상을 선언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는 근대불교잡지의 대표격인 〈불교〉(통권 108호, 1924. 7-1933. 7)에 대한 3인의 공동 저술이다. 잡지 창간이 1924년이니 조만간 창간 100주년이 다가온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난관을 뚫고 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려 노력했고, 또 불교대중화와 문화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수많은 불교지성의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며 책을 펴냈다.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간행된 〈불교〉는 근대불교사 자료의 보고로서, 그동안 종단의 운영, 인물, 사상, 문화교류,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잘 보관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불교〉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정도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불교〉지를 포함한 여러 잡지는 주로 불교사와 인물 연구의 자료에 국한된 감이 있다. 발행 기관, 운영 주체, 편집인과 직원, 경제적 기반과 운영 상황 등 잡지 자체의 존재론, 그리고 잡지에 넘쳐나는 문화적 실천, 문화운동의 실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는 불교사, 불교시가문학, 불교서사문학을 전공하는 세 명의 공저자가 〈불교〉지에 담겨있는 불교지성들의 문화적 실천 양상에 대해 고찰한 성과를 담았다. 즉 '〈불교〉지란 무엇인가' '〈불교〉지에 구현된 문학적 양상과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불교〉지를 통해 구현된 불교대중화의 기제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에 대한 글로 구성하였다.

제1부 기관지 〈불교〉는 〈불교〉지의 물적 토대와 운영기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수록하였다. 저자는 지난 1백년간 간행된 불교잡지는 근대 불교지식인의 등용문이었고, 종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공적 지면으로 활용되었으며,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불교대중화의 선도자로서 시대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불교〉지의 창간 배경과 발행과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소개하며 주요 집필자(권상로, 한용운, 김태흡, 허영호, 장도환)와 글의 성향을 소개하였고, 〈불교〉지가 얻은 불교사적 성과를 제시하였다.

제2부 문학지 〈불교〉는 1천여 편으로 추산되는 방대한 분량의 문학작품이 실려 있는 〈불교〉지의 문학적 흐름을 문학장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1920년대 〈불교〉지의 문학장-형성의 주체와 동력〉은 1920년대 불교 문학장을 형성하는 중심 주체로 권상로의 대승사, 김용사 네트워크(최취허, 안진호)에 주목하고, 이들이 전개한 문학 창작의 양상을 살펴본 글이다. 〈1920년대 〈불교〉지에 나타난 불교 유학생의 문학 활동〉은 1920년대 신진 유학생 그룹의 문학 활동 양상을 고찰하였다.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성 유학을 떠난 백성욱, 일본유학생인 김태흡, 이영재의 문학작품에 주목하였다. 이들 신세대 유학생들은 정신적인 지주로서 박한영을 존경하고 따르며, 〈불교〉지의 편집인인 권상로와 밀접한 교류를 나누면서 활동한 양상을 소개하였다. 〈1930년대 〈불교〉지의 문학장-구성과 문학적 실현 양상〉은 1930년대의 문학장 구성의 주체와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살핀 글이다. 1930년대 잡지 편집인으로 등장한 한용운이 새로운 편제를 통해 신진문사들을 다수 등장시킨 경과를 살펴보았고, 만해가 권두언에 새로운 산문시를 게재함으로써 문학지의 성격을 가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불교시단〉을 통해 이 시대에 강원, 전문학교 출신의 문학청년 40여 명이 시인으로 등장하였는데, 만해는 이들 신진 문사들, 불교문학청년들을 지면으로 이끌어내는 데 좌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3부 대중지 〈불교〉에서는 불교대중화의 기제로 여성과 어린이, 신앙담(영험담)과 동화에 주목하였다.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은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을 고찰한 글이다. 이 글은 〈불교〉지 간행 이전인 1910년대 불교잡지에 불타의 여성관이 대두하는 상황을 고찰한 후, 1920년대 여성관을 고찰한 결과, 1920년대는 불교잡지에 여성담론이 급증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졌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근대 불교잡지의 동화와 그 설화 전승상의 의의-〈불교〉 '소년란' 의 동화를 중심으로〉는 근대 불교잡지에 수록된 동화의 근원과 유형, 특징, 의의 등을 검토한 글이다. 〈근대 불교잡지의 영이담-〈불교〉 '부사의(不思議)' 란 소재 이야기를 중심으로〉는 불교잡지에 다수 보이는 근대 영이담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 글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대 영이담의 구조적 의미를 검토하여 근대와 차별되는 지점을 확인하였고, 불교잡지에 수록된 불상출현담과 관음치병담을 분석하여 근대 영이담의 구조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특히 여성독자, 어린이, 영험담, 동화, 문학창작 등에 대한 본서의 약간의 독립적인 논고는 근대잡지 〈불교〉에 담긴 근대성, 대중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1931년 7월(84·85합호)에 〈불교〉지의 발행인이 되면서 불교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적 실천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불교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이후 다양하지만, 〈조선불교의 개혁안〉(88호, 1931.10)에 제시한 불교대중화, 불교문화운동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 만해는 불교도의 자각을 제언하면서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가 현금(現今) 조선불교의 슬로건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대중을 떠나서 불교를 행할 수 없고, 불교를 떠나 대중을 제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중불교의 건설' 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불교도가 사회적으로 진출하여 불교교화를 궁행실천함이며, 불교의 교화가 대중층에 파급할 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보편적 독자를 얻을만한 불교적 문예작품, 불교교화에 대한 실사(實寫) 급(及) 창작 영화, 선전적 비라, 팜푸레트의 무료반포, 불교도서관의 공개, 노농층(勞農層)에 대한 사회적 시설(施設), 기타 종종의 대중적 교양에 필요한 시설'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표 부록으로 '근대 불교잡지 연표' 와 '〈불교〉 연표' 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잡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근대 불교잡지 연표' 는 1910년 창간된 〈원종〉부터 1938년 창간한 〈흥법우〉까지, 창간 연도를 기준으로 발행 정보를 약술했다. 〈각성〉, 〈황야〉, 〈불교세계〉, 〈무아〉, 〈적련〉, 〈관서불교〉, 〈대법뢰〉, 〈적광시보〉 등 잡지 제목만 전하는 경우도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다. '〈불교〉 연표' 는 1호에서 108호까지 발행 연도와 발행인 정보를 제시하였고, 호마다 시론 교육 단체, 학술 논설 수필, 시, 소설 희곡, 기행문, 설화 영험담, 번역, 기타로 나누어 필자와 제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불교잡지 전모와 〈불교〉의 구체적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김종진**은?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불교가사의 유통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불교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불가한문학의 번역과 연구,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 연구를 진행중이다.

저서로는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이회),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소명출판), 〈한국 불교시가의 동아시아적 맥락과 근대성〉(소명출판) 등이 있고, 번역서로 〈정토보서〉 〈백암정토찬〉 〈염불보권문〉 〈호은집〉 〈송계대선사문집〉 〈괄허집〉 〈백열록〉 〈만덕사지〉(이상 동국대 출판부) 등이 있다.

▲저자 **박상란**은?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강사. 한국 서사문학에 담긴 불교적 시각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공저),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 〈근대의 불교신앙체험담, 그 서사적 특징과 의의〉 등이 있다.

▲저자 **김성연**은?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근대 불교교단 기구 및 청년단체와 불교개혁론 등에 대한 불교사적 의의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운영과 한계〉 〈1910년대 불교 근대화론과 종교적 지평의 확대〉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성립과 활동〉 등이 있다.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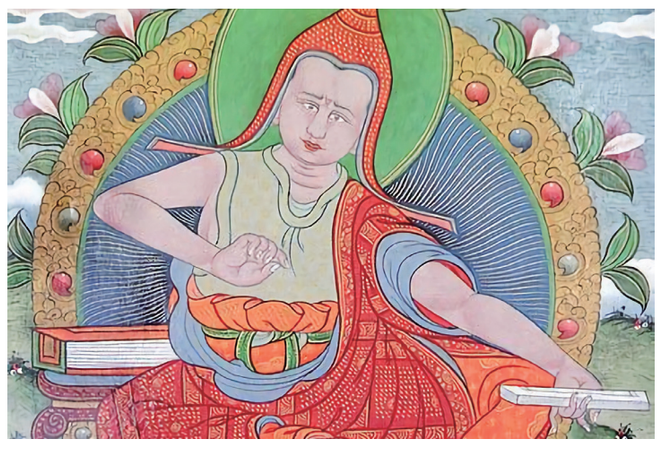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